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쯡웬 레전드



우리나라에도 G7커피로 잘 알려져 있는 쯡웬 레전드는 베트남 최대의 커피 생산, 가공, 유통기업이다. 1996년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의 커피 생산 중심지인 부온마투웃에서 ĐẶNG LÊ NGUYỄN VŨ가 창업했으며, 1998년에는 호찌민시에 첫 번째 쯡웬 커피 매장을 열었다. 이후 쯡웬 그룹은 빠르게 성장하여 곧 베트남 내 전역에 매장을 갖춘 것은 물론 2001년부터는 일본, 태국, 캄보디아 등 해외에도 진출하기 시작했다.

2003년 블라인드테스트에서 무려 89%가 선택하면서 화제를 모아 성공적으로 G7 브랜드를 출시했고, 2006년 APEC 정상회담에 공식 커피브랜드로 채택되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영국, 독일 등 전세계 80여 개 국가에 진출해 베트남 대표 커피 브랜드로 이름을 떨쳤다. 2018년 경영진 부부의 이혼으로 쯡웬과 쯡웬 레전드로 갈라졌고, 현재 쯡웬 레전드의 커피 매장이 베트남 내 154곳으로 쯡웬을 추월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커피 프랜차이즈와 커피 박물관, 커피 힐링 리조트 등 자사 대표 제품을 브랜드파워로 삼은 다양한 사업 확대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G7 커피 매출이 작년 대비 30% 성장했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쯡웬 측에서도 한국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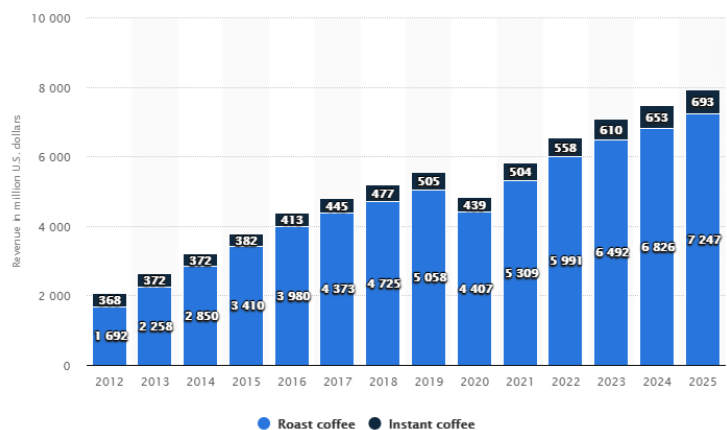
출처: [TRUNG NGUYEN LEGEND\(링크\)](#)

쯡웬레전드 '커피시티' 조성

쯡웬레전드는 최근 자사 창업의 역사가 서려 있는 부온마투웃에 “커피 시티 프로젝트”를 공식 개시했다. 2017년 커피시티 조성을 발표한 쯡웬레전드는 2018년 커피박물관을 설립하면서 부온마투웃이 속한 닥락 성의 관광 수입을 무려 40%나 증가시켰다. 올해 쯡웬은 커피시티라는 이름으로 정원, 요가센터, 활터 등 각종 시설을 결합한 모델하우스의 분양을 시작했다. 커피시티 1차 분양에서는 80분 안에 99%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쯡웬 레전드의 지역 특화 사업은 중부 고원 지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과 지역의 상생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출처: [THANH NIEN\(링크\)](#)

베트남 커피 시장은 지속적 성장 추세



베트남 커피 시장 매출 추이 및 예측 (출처: [Statista](#))

식민지 경험의 유산인 커피는 베트남인의 일상에 중요한 음료로 자리 잡았다. 현재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 1위는 베트남 출신 기업으로 현재 필리핀계 재벌이 지배하는 ‘하이랜드커피’가 독보적이다. 그 뒤를 커피하우스, 스타벅스, 쯡웬레전드 등이 뒤쫓는 형국이다.

출처: [KOTRA\(링크\)](#)

주요기사

1분기 순이익 1조 동 이상 기업은 총 22곳

지난 1분기 베트남 내 22개 기업이 "순이익 1조 VND 클럽"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분기 동안 부동산의 1위를 차지하던 빈훅즈를 제치고 철강기업인 호아팻이 순이익 1위에 올랐다. 호아팻은 7억 VND의 순이익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배나 뛰어올랐다. 이외에도 비엠클뱅크, 비엠티뱅크를 비롯한 금융기업 12곳이 포함되어 금년도 유동성의 대대적인 확장을 잘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비나밀크, PVGas, 모바일월드, 베트남고무그룹 등 기존의 대기업들 역시 안정적인 순이익을 기록하며 1조 동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출처: [Viet Nam News\(링크\)](#)

코로나19로 비디오게임 시장 급성장

코로나19 기간 베트남의 비디오게임 시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인 App Annie에 따르면 베트남 내 전자게임 소비액은 50% 이상 성장했으며, 모바일 대기업 VND가 개발한 앱인 LuuTinh은 동남아 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인기를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락다운 등으로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VietnamBiz\(링크\)](#)

재무부, 국내 생산 차량 등록세 감면 연장 불가

베트남자동차생산자협회(VAMA)가 국내 생산 차량의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연장해달라고 재무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재무부는 VAMA의 제안이 현 상황에 부적절하다면서 현행 규정과 세율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2020년 6월 28일 정부가 발효한 등록세 50% 감면 정책은 지난 2020년 말 종료되었다. 다수의 차량 제조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판매량이 감소하자 재고비용이 늘어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했던 사정을 감안한 것이었다. 실제로 VAMA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반기 차량 생산량은 2019년 대비 40% 감소했다. 그러나 등록세 감면을 비롯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자동차 생산업체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2020년 7월~12월 차량 생산분은 2019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111,551대였고, 판매량은 13% 증가한 189,451대였다. 재무부는 2020년 하반기의 등록세 감면 정책으로 국가재정에 약 1억 5,900만 USD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재무부는 일전에 이미 국내 생산 차량의 등록세 감면 정책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었다. 다만 국내 차량 제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Viet Nam News\(링크\)](#)

금융

HSBC, 베트남 금융 안정성 지적

HSBC 은행이 베트남 금융시장 실태 보고서를 펴냈다. HSBC는 베트남의 금융 개혁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자기자본비율로 볼 때 베트남은 아세안 내 유일하게 바젤 II 최소 기준인 8%를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로, 금융 안정성이 뒤떨어졌음을 지적했다. 일부 국영은행마저도 자기자본비율이 미달하며, 2020년까지 모든 은행에 바젤 II를 적용하는 정책은 코로나19로 2023년까지 미뤄졌다. 또한 HSBC는 가계부채와 소비자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이 조사는 비엠클뱅크, 비엠티뱅크, BIDV, 아그리뱅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출처: [VietnamBiz\(링크\)](#)

국영은행, 부동산 대출 과열에 '경고'

베트남국영은행(SBV)은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에 부동산, 건설, 민자사업, 소비자금융 분야의 대출 집중도를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SBV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과 증권의 투자와 거래에 대출한 일부 금융기관에서 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채권의 비율 역시 일부 금융기관에서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금융에서 부실채권의 비율이 높았으며, 부동산 개발 및 거래용 회사채 투자도 리스크가 높았다. SBV는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 목적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특히 부동산 대출 과열을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Viet Nam News\(링크\)](#)

빈투언 성



판티엣 시 Region 2

라지, 함투언박, 함투언남 Region 3

그 외 지역 Region 4

2021년	최저임금(đ)
Region 1	4,420,000
Region 2	3,920,000
Region 3	3,430,000
Region 4	3,070,000

명칭: Binh Thuận

성도: Phan Thiết

교통: 1A, 28, 55 고속국도 /

남북종단철도 / 리엔크영 국제공항,

떤선넷 국제공항, 깜란 공항 / Phy Quy
항구

GRDP: 33억 USD (2019)

연평균성장률: 11.09% (2019)

호찌민시 동부에 인접한 빈투언 성은 21세기 초반 베트남 남부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2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발전한 지역이다. 인구는 약 123만 명이며 2차 산업 외에도 아름다운 해안을 끼고 있어 관광업이 발달했다. 특히 최근 베트남의 리조트 개발 붐을 타고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이다.

출처: [베한타임즈\(링크\)](#)

뚜이퐁 공단 (Tuy Phong)

면적: 150ha

입지: 1A 고속국도, / 판티엣 시 97km / 빈띠 항구 6km / 깜란 공항 100km / 빈하오 역 1km

전기: 110/22 KV (35KV) 발전소당 용량 110/22 KV

비용:

- 임대료: 23-29 USD/m² (관리비 0.02 USD/m²/년)
- 전기료: Normal hours 1,388 VND/kWh + Peak hours 2,564 VND/kWh + Idle hour 988 VND/kWh
- 폐수 처리: 0.2-0.3 USD/m³

인접 시설: 빈띠 화력발전소, 뚜이퐁 풍력발전소, 빙하오 생수공장, 빙하오 식품제조공장 등

출처: [베한타임즈\(링크\)](#), [Invest Vietnam\(링크\)](#)

함끼엠 제1공단 (Ham Kiem I)

면적: 132ha

입지: 1A 고속국도 / 판티엣 시 9km / 빈투언 역 7km / 판티엣 항 10km, 빈띠 항구 108km

주요산업: 식품가공업, 의류 및 신발 제조업, 농수산업용 기계 조립, 전기전자제품 조립, 건설자재업 등

비용:

- 임대료: 38 USD/m² (관리비 0.1 USD/m²/년)
- 전기료: 국가 기준에 따라 책정
- 물 사용료: 14,000 VND/m³
- 폐수 처리: 0.3 USD/m³

출처: [Seedland \(링크\)](#)

코오롱 인더스트리 (Kolon Industry)

코오롱 인더스트리 베트남 타이어코드 공장 증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올해 초 베트남 북부 빈즈엉 성에 소재한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연 생산능력을 1만 9,200톤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이어코드는 타이어 속에 들어가 타이어의 뼈대 역할을 하는 섬유보강재로서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라 진입장벽이 높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내년 9월 완공 목표로 추가 증설에 나서, 1차로 1,431억 원, 2차로 1,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설이 마무리되면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타이어코드 생산 능력은 10만 톤 이상으로 증가한다. 코오롱 측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추어 타이어코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차량은 배터리 무게로 인하여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내구성 기준이 높아 타이어코드 수요량이 많다.

출처: [서울경제\(링크\)](#)

코오롱 인더스트리 1분기 실적 ↑, 전망 개선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160% 증가한 691억 원을 기록하여 시장 전망치인 545억 원을 훌쩍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업자재 영업이익은 353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2% 증가했다. 증권 전문가는 "자동차, 타이어 수요 회복에 따른 단가 상승과 자회사 실적 개선이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분석하며, "베트남 타이어코드 공장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밝혔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실적 호조는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2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한 763억 원으로 예상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로 자동차 제조업 전반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지만,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주력 산업인 타이어코드는 교체용 비중이 75%로 매우 높아 관련된 우려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단가 상승으로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출처: [MoneyS\(링크\)](#)

베트남 진출 연대기

국내 굴지의 화학/소재 기업인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1990년대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공장을 준공하거나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동남아 진출의 기틀을 다졌다. 코오롱은 지난 2017년 베트남에 에어백 공장을 준공하고 호찌민시의 에어백 봉제공장을 인수하면서 베트남 진출을 시작했다.

한편 2018년에는 총 투자금 2,600억 원, 공장 설립에만 1,431억 원을 투입하여, 중국 난징 공장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 타이어코드 생산기지를 마련하였다. 베트남 공장 증설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세계 타이어코드 시장의 15%에 해당하는 9만 3,800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특히 베트남 내 사업확대는 이웅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직접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와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챙긴 결과라는 후문이 전해졌다.

현재 코오롱 베트남법인은 2곳의 에어백 공장을 가동 중이며 한국인 직원 10명과 현지인 직원 2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타이어코드 공장의 대대적인 증설 계획을 밝히면서 재도약의 기치를 올리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링크\)](#), [코오롱인더스트리\(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jiho@jplawvn.com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